

프로야구 개인 타이틀 어떻게 돼가나?

# 打 '안갯속'... '굳혀진' 投



〈이현곤〉

공격부문은 혼전 그 자체. 10일 현재 타율·안타부분 1위에 랭크된 이현곤(KIA)을 중심으로 최고의 교타자를 가리는 타격왕 다툼이 뜨겁다.

리딩히터인 이현곤(KIA·타율 0.337)부터 김동주(두산·타율 0.335), 이대호(롯데·타율 0.334), 정근우(SK·타율 0.334)까지 네 명이 7리(0.007) 범위 안에서 땀 뻘뻘 다투고 있어서다.

최근 5경기에서 김동주가 타율 0.588, 이대호가 타율 0.412(17타수 7안타)의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선두 탈환을 노리고 있고 이현곤과 정근우 역시 5경기에서 나란히 타율 0.389(18타수 7안타)의 고강도 타격감을 보이고 있어 '타격 전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득점과 타점, 도루, 최단타 부문도 선두와 2위 격차가 10개 이내여서 누구도 최종 부문 1위를 장담하기 어려운

올해 프로야구 공격과 마운드의 타이틀 경쟁이 시즌 막판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타자 부문은 주요 타이틀의 최종 주인공을 예측할 수 없는 안갯속에 빠져 든 반면 투수 부문에선 선두 독주 체제가 굳어지면서 윤곽이 거의 드러났기 때문이다.

- 타율 KIA 이현곤(0.335) 1위
- 김동주·이대호 등 바짝 추격
- 다승 두산 리오스 18승 독주
- 탈삼진은 류현진 2연패 유력



〈리오스〉

위로 도약했다. 시즌 30홀런과 함께 홀런왕 2연패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와달리 투수 부문은 타이틀 홀더가 사실상 가려졌다.

특급 외국인 에이스 다니엘 리오스(두산)가 시즌 18승으로 부문 2위인 케니 레이번(SK·15승)을 3승 차로 제쳐 다승왕을 예약했고 평균자책점도 유일한 1점대인 1.92로 류현진(한화·평균자책점 2.81)을 멀찌감치 따돌려 2관왕이 유력하다.

또 탈삼진 부문은 지난해 투수 3관왕(다승·평균자책점·탈삼진)에 빛나는 류현진이 162개로 리오스(135개)에 크게 앞서 2연패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최연소 통산 100세이브에 1개 만을 남겨둔 철벽 마무리 오승환(삼성)도 시즌 36세이브로 유규민(LG·28세이브)과 간격을 크게 벌려 2연패는 떼는 당상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1일 대구 영남대 체육관에서 열린 제 27회 장애인체육대회 광주와 인천의 좌식배구 8강전에서 광주대표 문경록(1번)과 정중성(9번)이 상대 선수의 강스파이크를 블로킹하고 있다. /김천=네명기자 mjna@kwangju.co.kr

## 김하은(세광중) 광주에 첫 금 선물

김하은(세광중 2)이 육상에서 광주선수단에게 첫 금메달을 안겼다.

광주는 11일 경북 김천에서 열리고 있는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첫날 김하은이 육상에서 첫 금메달 소식을 전하면서 5개의 금메달과 은8개, 동 4개를 획득해 기분좋은 출발을 보였다. 반면 전남은 금메달을 한 개도 얻지 못하고 은메달 4개에 그쳐 아쉬움을 달렸다.

김하은은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여자부 단거리 100m에서 금소식을 전하며 선수단 분위기를 이끌었다. 신석섭과 정철기도

### 여자 육상 100m서 희소식 전남 금 없이는 4개 획득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포항시민빌딩장에서 열린 불린 남자복식에서 역시 금메달을 따냈고, 최중선은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광영 50m에서 역시 금빛 물살을 갈랐다. 정진덕과 안채형은 룬밭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초반 광주의 상승무드에 힘을 보탤다.

여자 양궁 김남숙, 여자 투포환 류난희, 불린 김대영·송영섭은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수영 광영 50m에서 금메달을 따낸 최중선은 자유형 50m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박태광, 문병남, 임태현은 각각 수영 자유형 50m·광영 50m, 배영 50m, 접영 50m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정중성과 임태현은 각각 남자 투포환과 수영 자유형 5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윤세웅과 최정희도 각각 남자 수영 50m와 여자 수영 광영50m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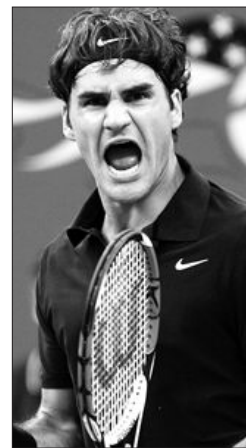
### “페더러, 지배적인 선수는 우즈와 나 뿐”

#### 블룸버그 통신 보도

10일 끝난 US오픈테니스대회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한 로저 페더러(26·스위스·사진)가 “현재 지배적인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 나와 타이거 우즈(32·미국) 뿐”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US오픈이 끝나고 하루가 지난 11일 뉴욕에서 페더러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전하며 “페더러가 이밖에도 미국프로농구(NBA) 코비 브라이언트, 모터바이크 레이서인 발렌티노 로시,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1) 드라이버였던 미하일 슈마허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같은 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BMW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한 우즈가 페더러에게 US오픈 우승



축하 이메일을 보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페더러는 이메일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별 것 없었다. 나도 ‘잘했다’고 답했다”면서 “우리 둘이 같은 주말에 우승을 차지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페더러와 우즈가 같은 날 우승을 차지하면서 “둘 중 누가 더 뛰어난 선수인가”하는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12일(수)

- ▲자넷리특집당구 코리아(코리아-월드 Day-1)(14 : 00·MBC ESPN)
- ▲제16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14 : 00·KBSN SPORTS)
- ▲제27회 장애인체육대회(14 : 10·KBS 1)
- ▲제13회 안성 세계 정구선수권 단체전 남녀복식 결승(14 : 50·Xports)
- ▲일본 프로야구(주니치-요코하마)(17 : 50·SBS 스포츠), <야우르트-요미우리>(18 : 20·MBC ESPN)
- ▲프로야구(LG-한화)(18 : 00·KBSN SPORTS)
- ▲2008 북경올림픽 축구 최종예선(한국-시리아)(19 : 40·SBS스포츠, 19 : 50·KBS 2·Xports)
- ▲제14회 아시아 여자 배구 선수권대회(22 : 00·KBSN SPORTS)



### KBO, 14일 이대진 '1천 탈삼진' 시상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광주주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에 앞서 베네딕투수 이대진(33·KIA·사진)에게 1천탈삼진 기념상을 수여한다.

1993년 광주진흥고를 졸업한 뒤 해태(KIA 전신)에 입단한 이대진은 지난 7일 대전주장에서 열린 한화전

에서 데뷔 15년 만에 프로 통산 21번째로 탈삼진 1천개를 달성했다.

이대진은 1995년(163개)과 1998년(183개) 탈삼진왕을 차지했고, 1998년 5월14일 인천에서 벌어진 현대전에서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10타자 연속 탈삼진의 대기록을 세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제5기 한자한문지도사 자격모집

1. 연수일정

- 개강일시 : 주중반 : 2007. 9. 14(금)
- : 주말반 : 2007. 9. 15(토)
- 모집기간 : 8. 17(금)~9. 15(토)
- 수업기간 : 2007.9.14~2008.2.23(6개월/24주)
- 수강료 : 320,000

모집인원:1단계 주중/주말반 각20명(선착순)

수업시간 : (매주 금, 토)09:10~14:30(5강좌)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TEL:(062)950-3584, 3585, HP.011-614-4160

## 10월 28일 공인중개사 합격

### 최종문제풀이 특강 6주 완성

개강 9월 10일

"매일 핵심 40문항 모의시험 문제풀이를 통해 최종 합격 점점"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7도형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점 앞 광주은행 4F)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진정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본사 판매국(062)220-0551

<b>영암스포츠타사지</b> 영암읍 서남리 헬스장1층 목하리다스크 초·중·고 최후측만중 스포츠및시차최선의 서비스로모시겠습니다 ☎(061)471-6629	<b>야후허브샵</b> 치평동 우리병원후문맞은편 미니스톱5층 대표 박은미 ☎(062)383-1888	<b>예술식당</b> 지산동 법원 승강장옆 생고기,갈비찜,생태탕전문점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062)222-9998	<b>고향맛집</b> 농성동 서구청과 삼북화관사이 추가탕 전문점 대표 표정식 ☎(062)369-3331
<b>신도블이식당</b> 영암군 읍 서남리 부곡동육림원 김자탕 전문점 최고맛! 최선의 서비스로모시겠습니다 ☎(061)471-5118	<b>문화회관</b> 금동 구서형사거리 남영원50M 구획사업 꽃등심생고기(삼계탕)단체예약가능형 ☎(062)226-9282	<b>강강술래</b> 종암동 1034번지 한우완소, 한근(600g)23,000원 삼겹살 가격으로 한우 완소를 구워드립니다 ☎(062)682-5231	<b>(주)마루다카코리아두입점</b> 두암동 시외버스정류장옆 SK칼러점2층 할매를 제정하게해줄때 맑게산(생)본짜로 전위치료기 무료체험관운영 상담환영 ☎(062)267-1755
<b>엘리트신코리아전남총판</b> 영암군 바스도마빌후문 애경백방앞인양 키토신총판장 한·기류, 건강보조의료기 피부보호 보습총과 ☎(061)472-8281	<b>금호설비</b> 회정동 추선화관뒤편 가스보일러,기름보일러,사유기,냉·난방 양기,정화조,보일러,보일러,정수기,주방기 등 ☎(062)364-8019	<b>시무연가</b> 농성동 유안초등학교인구 돌,백일,계백,담배,헨스케이 떡전문점 대표 박정호 ☎(062)676-8452	<b>반도유봉</b> 계림동 이마트 건너 화강학교앞 윤물·홍삼제품판매 대표 정세민 ☎(062)527-7468